

## ‘오즈의 마법사가 ‘춘향전’을 거치기까지

방현영\*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재학중. 제2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에서 「임권택의 「춘향전」을 읽다: 판소리 「춘향가」와의 비교」(『한국 문학과 영화』 리포트, 담당교수 천정환)로 우수상을 받았다.

글 쓰는 일은 시절이 지날수록 고통을 더하는 노정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오히려 말들이 술술 흘러나왔다. 이상하게도 세월을 더하면 서는 글을 쥐어짜내는 고통이 붙어났다. 요즘도 글 한 페이지를 쓰는데 직접 작성하는 시간 외에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느라 소모하는 시간이 몇 배는 더 걸린다.

왜 그런지 헤아려보니 옛날에는 글을 배설하듯 흘러 썼는데, 지금은 건축하듯 재료를 깎고 정제해서 배열, 수정하는 작업의 무게가 너무 커져 그런가보다. 글 쓰는 일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꼭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과도 닮았다. 흘러 쓰는 글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유아기적 모습이라면, 글에 드러나는 내 모습과 읽을 사람들 모두를 고려하며 한 톨씩 활자를 심는 글쓰기는 표현에 ‘책임’이 담기기를 요구하는 어른의 모습이다. 여기, 글쓰기에 관한 나의 고백 글에 내 인생에 대한 고백까지 담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짙막한 글의 서두를 끄집어내는 데에도 벌써 해가 저물었다.

오즈의 마법사는 나를 너무 부풀려버렸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꾸깃꾸깃한 종이에 그림을 섞어 여섯 페

이지찌리 책을 만든 것이 내 최초의 완결된 장편이었다. 사실 『오즈의 마법사』류 판타지 동화를 각색한 것에 불과했지만 1992년 그해 가을 나는 뿌듯함에 몸서리쳤다. 피발개발 끼적인 종이 몇 장을 호치키스로 쿡 눌러 찍고 흥이 나서 담임선생님께 달려가 보여드렸다. 선생님은 글에 대한 코멘트 대신 열 살의 나이에 이런 글을 완성한 것은 훌륭하다는 격려의 평을 선사해주셨다. 나는 또 으쓱했다.

중요한 점은 이때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작업에 대한 거부감의 문턱을 낮출 수 있었기에 좋은 경험이면서도 글쓰기가 화려한 보상의 통로가 되어왔던 것이 이때부터의 버릇이다. 문장으로 잔뜩 치장하고 멋진 찬사를 기다리는 나만의 피드백의 잔치. 그래서 기교에 대한 욕심이 과중했다. 글을 쓰기 전 주제와 논거를 충분히 구성하는 차분한 ‘설계’의 과정을 건너뛰기 일쑤였다. 일단 펜을 잡고 빈 여백을 채워 써내려가는 쾌감, 완성시키는 작업 자체에 탐닉하느라 나만의 내실 있는 훈련을 진행시키지 못한 셈이다.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논지는 일관된 반면 흐름이 생동감을 잃거나, 문장 안에 너무 복잡한 수사가 한꺼번에 등장하느라 군더더기가 많아진다는 점, 뒷보다 주장에 대한 논거들이 구체성이 없고 부족해서 비약적이라는 취약점. 대입 논술을 준비하느라 기계처럼 다량의 글쓰기를 연습하던 고3 때의 어느 날 선생님께서 받은 코멘트의 요지다. 이때 선생님께서서는 나의 글을 ‘에둘러가기’라는 말로 정리해주셨다. 어떻게 ‘정곡을 찌르는’ 정교하고 간결한 글을 쓸까, 이것은 나의 글쓰기를 위한 최대의 과제였다.

#### 대학시절, 글쓰기는 더 어려워졌다

고교시절까지 내 글쓰기가 보상을 위한 과시의 수단이었다면, 대학시절의 그것은 좀더 명쾌하고 설득적하기를 요구했다. 이런 환경은 나를

‘에둘러가기’의 뒤틀림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했다. 더 이상 자족적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는, 힘 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결심도 했다.

자료 조사와 분석을 충분히 해서 글을 쓰는 시간보다 개요를 짜는 시간이 길수록 글은 논지에 근접한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었다. 내가 그 견해에 대해 열정적으로 관심이 있을수록 (당연하게도) 만족스러운 글이 써졌다. 이제껏 두루뭉술한 글을 토해낸 큰 이유 중에는 이런 기초 작업을 간과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주제의 걸만 훑는 습관이 자리한다는 점을 느꼈다.

그러나 문장에 번지르르한 욕심을 걷어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대학시절 내내 참 많은 글들을 썼지만 스스로 읽어보고 만족스러운 글은 별로 없는 편이다. 쓰는 동안은 미처 몰랐던 군더더기들이 독자의 예리한 눈매로 다시 훑다보면 툭툭 불거져 거슬러온 한다. 단단하고 알찬 문장을 쓰는 일은 지금 내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이다. 정확한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 쓰는 습관에도 신경 쓰고 있다. 그래서 글 쓰는 작업은 날이 갈수록 고되다. 요즘은 글을 쓸 때 신경이 너무 곤두서서 애꿎은 볼만 낚다 들어켜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기까지 한다.

#### 더 단단하고 정교한 글을 쓰고 싶다

이번에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을 잡게 되어 기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다. 더 좋은 글을 많이 쓰도록 꾸준히 노력하라는 따가운 질책이자 격려로 느껴진다. 수상 소식을 듣고 나서 글을 다시 읽어보니 허점이 훨씬 많이 발견됐다. 일단 목직한 분량의 글을 써놓고 쉽게 만족해했던 어린시절에 비해 내 태도는 많이 변한 것 같다. 평소 영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영화 텍스트를 학문적으로 소화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고 어려운 주제를 감히 파헤친다는 긴장감이 더 컸다. 그러나 덕분에

에 자료 조사와 분석을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 여러 날 자료를 뒤적여 원하던 답변과 증거들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이 즐겁기도 했다. 호기심을 계속 불러가면서 몰입해 썼기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글이 나온 것 같다. 글을 쓰는 일은, 단순히 활자로 종이를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분산된 지식의 파편을 모아 내 해석 체계를 완성하는 종합적인 해독 과정이라는 점을 절절히 체험한 좋은 기회였다. 나의 글쓰기가 세월을 거듭하면서 성장한 부분이라면 바로 글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학기 졸업을 앞두고 있다. 취직의 문턱에서 학문적인 글쓰기를 할 기회가 앞으로 많지 않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든 텍스트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해독하는 과정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고, 그 형태와 영향력은 더 구체적이 될 것이다. 타깃으로 삼는 설득의 대상도 직접적인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주어질 것이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시작된 내 글쓰기가 지금 어떤 과정 위에 놓여 있다면, 시행착오들을 발판삼아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는 생각이다. 이 계속되는 훈련이 내가 가진 논리 체계와 의미의 열개들을 좀더 단단하고 실하게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